

LUXURY

FEBRUARY 2021



2021 COLOR SPECIAL

설 명절을 위한 선물
NEW MUSEUM 8

Van Cleef & Arpels

뉴 뮤지엄의 지향점

그저 'New'만을 앞세운 뮤지엄이 아니다. 규격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땅의 스토리, 차별화된 콘텐츠와 공간 구성, 과감한 건축설계 등으로 뮤지엄의 새로운 지향점을 예고한다.

2021년, 또 다른 스토리로 시선을 사로잡는 8곳의 뮤지엄.



화영호, '선비의길 Scholar's Way'



랜드마크를 넘어서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낮게 매달린 구름을 부채꼴로 조각한 듯한 지붕에 반투명 글라스 실린더의 볼륨이 역동성을 더한다. 2만 2038㎡의 흰색 3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곳은 수직 배열한 반투명 글라스 실린더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다. 이 튜브형 구조는 기능적이면서도 장식적이다. 낮에는 열을 가두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밤에는 덴 폴라빈의 초대형 조각처럼 빛을 내뿜으며 휴스턴의 밤을 비춘다. 안과 밖을 연결하는 유기적 구조, 모든 층의 로비와 갤러리를 연결하는 계단식 조각계단은 이곳의 시그너처다. 세계적인 건축가 스티븐 홀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휴스턴 미술관(MFAH)'이다.

컬렉션 포화 상태인 기존 MFAH의 오랜 난제는 통 큰 기부자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다. 기부자의 이름을 딴 낸시 앤드 리치 킨더빌딩 Nancy and Rich Kinder Building에 문을 연 새 MFAH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미술품, 사진, 판화, 장식미술, 공예, 디자인 등 방대한 근현대 미술 소장품을 여유롭게 만날 수 있다. 1층은 알렉산더 콜더, 제이슨 샐러번 등 유연한 설치 작품 위주의 전시로, 2층과 3층은 기획·주제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건물 내·외부에는 얼마 전 고인이 된 색의 거장 카를로스 크루즈 디에스의 마지막 작품을 비롯해 올라푸르 엘리아손, 아이웨이웨이 등 세계적 거장들의 장소 특정적 커미션 작품이 자리한다. 한국 아트 피니처의 대표 작가 최병훈의 작품도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했다. 높이 3m의 기둥 3개로 이뤄진 '선비의 길 Scholar's Way'이라는 작품으로, 옛 선비의 수양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www.mfah.org

